

## 광주 지하철 공사 또 차질... '도심 교통지옥' 언제까지

전남대 후문 앞 등 난공사 구간 유찰...공사비 증액·공법 변경 등 요구  
도시철도 2호선 2029년 개통 난망...“불편 감수 시민에 약속은 지켜야”

‘광주 도심 교통지옥 유발자’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 등 일부 난공사 구간(공구)의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사 차질(3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10년 넘게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갑자기 난공사 구간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과 수의계약, 공법 변경 등을 거론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인 2호선은 1단계 6개, 2단계 8개 등 총 14개 공구로 나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광주시청~광주역·17km)와 2단계, 3단계(백운광장~효천역·4.8km)로 진행된다. 3단계는 작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지만,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1단계 공사는 2019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이미 공사기간 자체가 3년 정도 늦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2단계 구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산단~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정 구간·총 사업비 1조 5036억원)도 현 상태라면 2029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단계에 포함돼 있는 7공구와 10공구 사업이 최근 4차례나 유찰되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차 입찰에서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꼽히는 7공구(전남대 후문~오치동 육교 2.5km)는 업체들이 현 공사 비용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공사금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유찰됐으며, 10공구(본촌동 오비맥주광장~양산지구 사거리 1.8km)는 참여 업체들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올해 내로 업체가 선정되면 전체 공사 기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구간 자체가 워낙 난공사 구간인 데다 사업비 증액 등도 변수로 꼽힌다.

실제 오르막 구간을 포함한 전남대 후문 앞 7공구는 평소에도 대표적인 교통 정체 구간으로, 이 동인구가 많고 상가 밀집 지역인 탓에 도로 전체를 파헤치는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한다면 교통 대란

은 물론 인근 상인 등의 민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사 구간 주변 건축물 상당수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라는 점에서, 지하터널 공사 관련 건물 훼손 등 각종 돌발 변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0공구 역시 좁은 도로와 오르막 길 도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공사 난이도를 감안 하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일단 한차례 더 입찰 여부를 검토하고, 난공사 구간인 점을 감안해 사업비 증액이나 공법 변경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을 48~49%에서 40%로 낮추고 실적 기준도 100%에서 80%로 완화했다”며 “한 번 더 입찰에 나선 뒤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해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공법을 바꿔 발주하는 방법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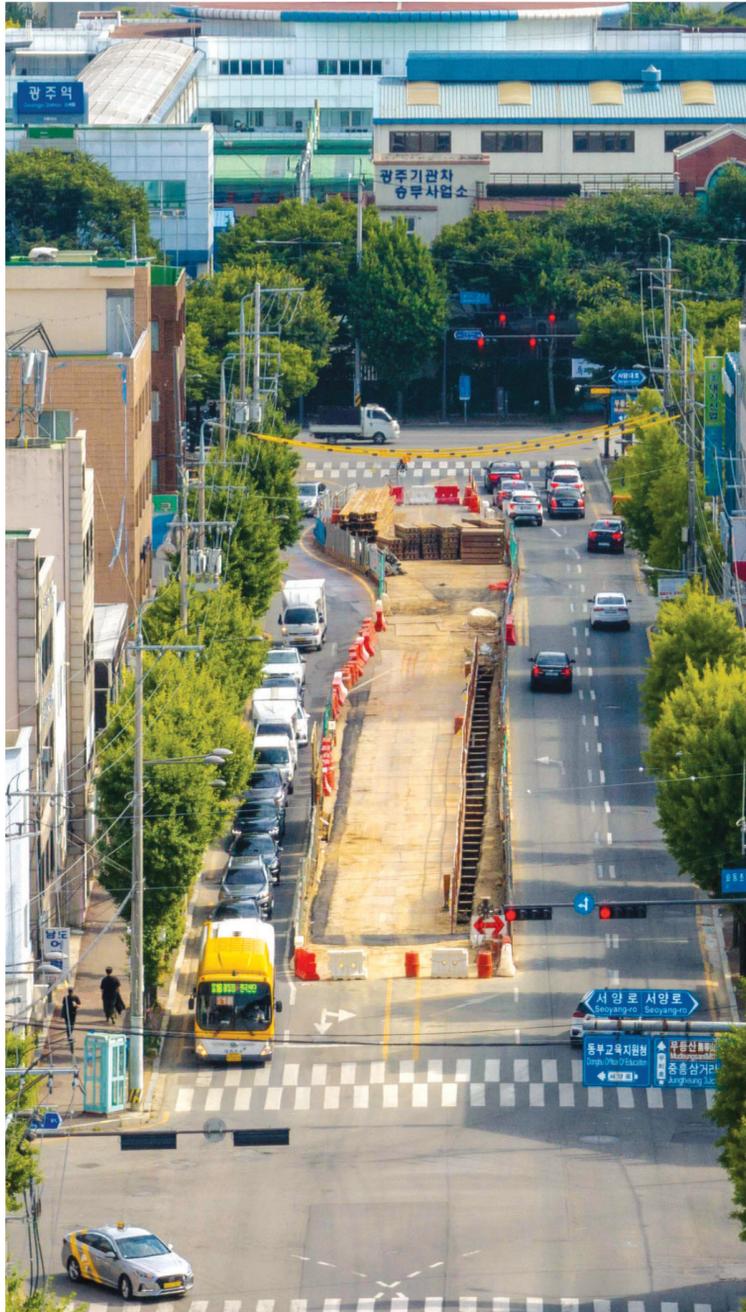
연이은 도시철도 공사 차질 소식에 시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만 하다.

시민 김진철(49·남구 봉선동)씨는 “언제까지 막힌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느냐”면서 “지하철 공사 기간을 단축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개통 시점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전남대 후문 앞 도로의 공사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난공사 등을 핑계로 공사비 증액과 수의계약, 공법 변경 등을 거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17.06km 구간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정 20.046km 구간이다. 3단계인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4.84km 구간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된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 중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현장 가운데 광주역~전남대 구간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2단계 현장 중 전남대 후문~오치동 육교에 이르는 7공구 등은 곡선 도로와 오래된 건축물이 즐비해 난공사로 꼽힌 탓에, 아직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은 6월 17일”이라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외식 물가 상승률 2.8%

### 3년째 평균 물가 웃돌아

먹거리 가격이 뛰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를 3년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식용유와 간장, 참기름 등 기초 재료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부터 6달 연속 평균치를 밑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 3년 동안 외식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그만큼 더 컸다는 얘기다.

외식 식품 품목 39개 중 절반이 넘는 23개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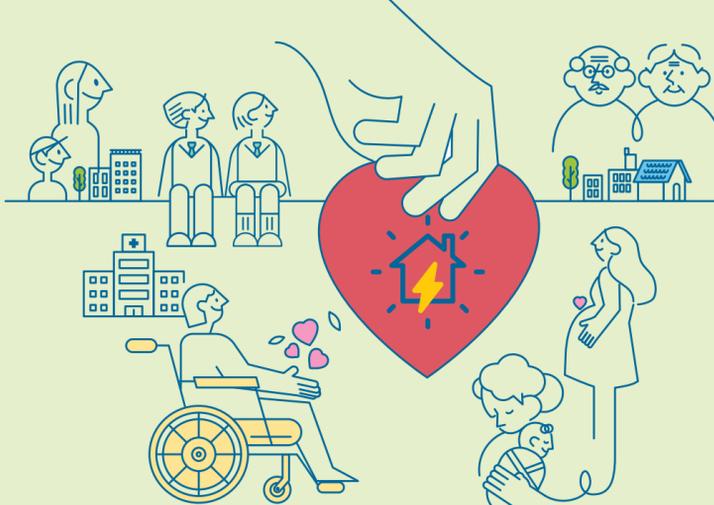
학동참사 3주기-54번 버스 기사의 눈물 ▶6면

복스 - '오빠, 남진' '용담유사' ▶14-15면

'1박 2일' 흥런 광광광...KIA 1위 지켰다 ▶18면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2) 실물카드(국민은행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회향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은행카드 등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 전라남도 | 한국에너지공단